

성수품 공급 확대...추석 물가 잡는다

과일 2배·채소 1.6배 등 내달초까지 14개 품목 방출

공공조달 납품기한 연장·특별자금 대출 신규 지원

정부가 폭우·폭염 탓에 크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쌀 가격에 추석 성수품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특별자금 대출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책도 내놨다.

◇과일 2배 방출, 직거래 활성화...물가 잡기 안간힘=정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를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14개 중점 관리 품목을 집중적으로 방출한다. 이 기간에 사과·배 등 과일류는 평소 대비 2배, 배추·무 등 채소류·임산물 은 1.6배, 축·수산물은 1.2배나 더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배추·계란·오징어 등 수급·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직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폭우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는 도매 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물량을 하루당 300톤(t)에서 400t으로 늘린다. 또 추석에 대비한 추가 수매물량 3000t도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50% 산 가격에 내놓는다.

최근 가격이 하락한 계란은 정부 수매(1천만개), 농협비축(1천만개), 민간보유(3천만개) 등으로 수급·가격이 불안해질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상태다.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오징어는 원양산(産) 반입물량 9800t을 즉시 유통하고 긴급수매 물량 200t을 다음 달 3일

까지 전통신장·대형마트 등에 33% 산 가격에 공급한다.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특판장 2145개소에서 다음 달 초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을 30~40% 싸게 판매한다.

◇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신규보증 1조2000억원 공급=공공조달 납품기한이 추석 연휴 직후인 경우에 다음 달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납품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은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상태를 전수조사해 필요하면 제재하기로 했다.

추석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를 인하할 유도와 실적도 집계해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별자금 대출 등을 위해 총 27조원 신

규자금을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저금리(2.5~2.7%)로 4000억원 수준의 경영안정·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보를 통해 1조2000억원의 신규 보증도 공급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제·관세 납기 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세금 환급도 조기에 신속하게 해주기로 했다.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생계비 대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체불근로자 지원도 확대한다.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재해보험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공연 등 문화·예술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협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5.47 (+6.39)	금리 (국고채 3년) 1.75% (0.00)
↑ 코스닥 660.05 (+3.52)	↓ 환율 (USD) 1128.50원 (-3.40)

8월 신용대출 사상 최대폭 증가

가계 대출 6조5000억 늘어...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지난달에도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6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한국기아은행(약칭 '기아뱅크')의 등장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非)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7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4조2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사이 6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이 7월(6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했다. 8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7조

7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가 7월(4조8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축소됐고 작년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잔액은 7월 말 185조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3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이 7월(1조9000억원)보다 크게 늘면서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종전에는 작년 11월 2조7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기타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과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

다. /연합뉴스

중국 더블스타 인수 포기...금호타이어 운명은?

계약 해제 합의서 보내...박삼구 자구안 다음주 승인 결정

'9조6천억 채무' 박 회장 인수해도 경영정상화 '산너머 산'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최종 무산되면서 8개월여간 진행했던 금호타이어 매각작업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12일 채권단에 주식매매계약서(SPA) 해제 합의서를 보내오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무산될 것을 대비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자구계획안을 보내 오면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주 중으로 자구계획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인되면 옛 사주인 박 회장과 매각 협상이 재개되지만 박 회장이 내놓는 경영 정상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자 매각이 추진되거나 또 다른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채권단 안팎에서는 현재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재매각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내 기업은 재벌간 정서 문제로 불참이 확실시 되고 있고, 금호타이어의 열악한 재무상태와 영업 실적으로 해외 업체들도 참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되찾아 간다고 해도 경영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하고 자칫 그룹 전체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총 금융채무는 9

조6000억이다. 금호타이어를 제외한 그룹의 실질 부채비율은 883%(상반기 말 기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1300%대에 이른다. 현 재무상태로는 채권 만기 연장을 비롯한 유동성 문

제 해결이나 노후화된 설비 투자 등을 통한 회생의 발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익성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원가 구조의 취약과 중국 사업 장기 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사업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이 자구 노력이 충분

치 않다고 판단하면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의 채무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또 한번의 워크아웃이나 P플랜(단기 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하다.

한편 채권단이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경우 SK네트웍스와 롯데케미칼, 대우인터내셔널, 해외 업체로는 일본 요코하마 등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곡성중앙초, 광주로 영화 나들이
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2일 문화 체험 학습으로 유·스케어를 찾은 곡성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CGV에서 단체 영화 관람을 위해 줄을 서 있다. 학생들은 영화 관람 후 영평문고에 들러 책을 구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형 일자리' 지역기업의 역할은?

광주상의 내일 DJ센터서 고용포럼

광주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광주 고용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광주형 일자리-지역기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상생형 지역 맞춤형 일자리의 역할과 과제 등을 모색하게 된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계란에 비유하자면, 껍질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실

현을 의미한다"며 "현재 그 일환으로 광주시에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작동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심화와 사회협약의 체결을 모색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원자는 기존 기업들이 광주형 일자리를 기업 경영방식의 전환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며 "핵심 방안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그리고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기업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350-5892.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중흥토건 서울 천호 1구역 도시정비 수주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서울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주액은 3663억원이다. 천호1구역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일대 3만8천508㎡에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264실,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규모다.

천호1구역은 천호시장, 동서울시장 등 전통신장 네 곳과 집창촌이 있는 곳이다. 강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잠실이 가까워 재개발 시 잠재 가치가 높다

는 평가다. 또한 중흥토건은 반도건설과 함께 부산 서·금사 재정비촉진 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수주액은 4707억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옵션 선택가능

www.housecomma.com

하우스콤마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육식, 절수 수도꼭지